



한국 남자 농구, 아시아컵 4강 진출

필리핀에 118-86 승리... 4년 만에 준결승전 진출 20일 이란과 격돌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필리핀을 꺾고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4강에 올랐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농구 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필리핀(27위)에 118-86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거둔 한국은 2013년 이후 4년 만에 준결승전에 올랐다.

오세근이 22점과 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김선형 역시 21점 4어시스트로 힘을 보탤 김준규도 15점을 올렸다.

전반 초반 한국은 김선형의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필리핀을 압박했다.

최준용과 이정현의 3점슛이 터지면서 1쿼터는 26-18로 앞선 채 끝났다.

2쿼터에서는 양 팀의 3점슛 대결이 펼쳐졌다.

김선형과 최준용이 연달아 3점을 성공시키자 필리핀은 로미오가 3점슛 3개를 넣으며 반격했다.

이후 필리핀은 로미오의 활약으로 점수를 좁히며 49-57로 따라 붙었다.

후반 들어 오세근을 시작으로 김선형, 이정현의 득점이 터지면서 앞서나갔다.

필리핀은 공격이 차단되면서 고전을 펼쳤다.

3쿼터 중반 한국이 70-53으로 23점차

로 앞섰다.

한국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선수 전원이 고른 득점을 올렸다.

4쿼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했다.

필리핀이 막판 추격에 나섰다지만 점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기 종료는 앞두고는 박찬희와 양홍석까지 3점포에 가세하며 승리를 지속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이란이 개최국 레바논을 80-7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오는 20일 이란과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김민근기자

호날두 빠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꺾고 슈퍼컵 우승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꺾고 슈퍼컵 정상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17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슈퍼컵 코파 데 에스파냐(슈퍼컵) 2차전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앞서 지난 1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캄 노우서 열린 1차전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1, 2차전 합계 5-1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슈퍼컵은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 우승팀과 코파 델 레이(국왕컵) 우승팀이 맞붙는 경기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만에 우승을 맛봤다.

1차전에서 경고 누적과 심판을 밀친 이유로 5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이날 관중석에서 팀의 우승을 지켜봤다.

호날두가 빠졌지만 전반 초반부터 레알의 공격이 빨랐다. 선제골 역시 전반 4분만에 터지며 분위기가 레알 마드리드로 기울었다.

아센시오가 페널티박스 밖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레알은 전반 39분 카림 벤제마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1차전에서 1-3으로 패한 바르셀로나는 우승을 위해서 3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전반 초반 실점을 하면서 공격의 세밀함이 떨어졌다.

루이스 수아레스가 분전했지만 레알의 수비를 뚫지 못했고 리오넬 메시 역시 위력적이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잇따른 골대 불운으로

우승을 지켜봤다.

호날두가 빠졌지만 전반 초반부터 레알의 공격이 빨랐다. 선제골 역시 전반 4분만에 터지며 분위기가 레알 마드리드로 기울었다.

아센시오가 페널티박스 밖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레알은 전반 39분 카림 벤제마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1차전에서 1-3으로 패한 바르셀로나는 우승을 위해서 3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전반 초반 실점을 하면서 공격의 세밀함이 떨어졌다.

루이스 수아레스가 분전했지만 레알의 수비를 뚫지 못했고 리오넬 메시 역시 위력적이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잇따른 골대 불운으로



물어야 했다. 후반 7분과 후반 26분 메시와 수아레스의 슈팅이 골대를 땅을 쳤다.

레알은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펼치며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막아냈다. 결국 추가 득점은 터지지 않았고 레알은 안방에서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한 호날두도 경기 후 그라운드로 내려와 동료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김민근기자

윤종신 '종니' 음원차트 1위 '역주행'

워너원 '에너제틱' 끌어내리고 주요사이트 실시간 1위 점령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윤종신이 장기 집권이 예상되던 아이돌 그룹 '워너원' 천하를 깬다.

윤종신이 2개월 전인 지난 6월22일 발표한 '종니'가 음원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워너원의 '에너제틱'을 끌어내리고 17일 오전 현재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을 비롯해 주요 사이트에서 실시간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워너원 외에도 '엑소', '빅뱅' 멤버 태양 등 인기 아이돌들의 신곡을 대거 제쳤다.

역주행은 이미 발표된 음원이 음원차트에서 뒤늦게 순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데뷔 27주년을 맞은 발라드 가수가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이다.

'종니는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리슨'을 통해 발매된 곡이다.

기획사 내 좋은 음악이 있으면 수시로 발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미스틱 소속 작곡가 포스트노가 작곡하고 윤종신이 노랫말을 붙인 이 곡은 윤종신 특유의 애절함이 배인



윤종신 '종니' 커버.

발라드다.

그는 이 곡에 대해 "마치 제가 이십대 초반이었던 그 때처럼 서럽게 처절하게 이별 노래를 불러봤다"고 소개했다.

아이돌 신곡과 드라마 OST 위주로 채워지는 음원차트 특성상 공개 당시 음원차트 100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고 70위권 안팎으로 진입하더니,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을 통해 공개된 라

이브 클럽이 주목 받으면서 10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마침내 16일 오후부터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윤종신은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철 지난 한 '올드 스쿨(Old School)' 가수의 노래를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뉴시스

동방신기, 2년 만에 활동 재개

한류듀오 '동방신기'가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1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오는 21일 서울과 도쿄, 22일 홍콩 등 아시아 3개 도시를 순회하는 '동방신기 아시아 프레스 투어'를 펼친다.

이번 아시아 프레스 투어는 지난 4월 전역한 멤버 유노윤호와 오는 18일 군 복무를 마치는 최강창민이 동

방신기로서 2년 만에 진행하는 첫 공식 행사다.

동방신기는 지난 2004년 데뷔 이래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활약하며 K팝 열풍을 이끈 선두주자로 통한다. 2015년 7월 입대를 앞두고 발표한 스페셜 앨범 '라이즈 애즈 갓 (RISE AS GOD)'으로 한국과 중국의 음악 차트를 석권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일본



단독 콘서트 투어 누적 관객수 275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자 축구대표팀 윤덕여 감독, 2년 재계약 확정... 2019년까지 지휘봉

여자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윤덕여 감독이 2년 재계약을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최근 윤 감독과 2년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윤 감독은 오는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본선까지 대표팀을 맡는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여자 대표팀

을 맡아온 윤 감독은 2015년 6월 캐나다 여자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뤄냈고 올해 4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에서 북한과 1-1 무승부를 거두며 B조 1위(3승무)로 아시안컵 본선 출전권을 획득했다.

아시안컵 본선행을 이뤄낸 윤 감독은 내년 4월 요르단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2019년 프랑스 여자 월드컵 본선 티켓을 노린다.

8개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서 5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 본선 티켓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안컵 대비를 위해 오는 10월 20일과 23일 미국에서 피파(FIFA)랭킹 1위 미국과 두 차례 친선전을 치르고 12월엔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아컵에 나선다.

윤덕여 감독은 "지난 4월 평양 원정의 성공으로 2019년 프랑스 월드컵 진출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목표는 세계 무대 도전에 있는만큼 이번 미국과의 평가전이 대표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